

91.8.23

● 인터뷰 · 태평양화학 해고노동자 박경미 씨

“태평양 직원으로 남고 싶어요”

지난 5월 13일 ‘25%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던 태평양화학 노동자들이 1백여 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애초에 이 회사 옥상에서 1천2백명 정도가 함께 했던 농성은 우여곡절 끝에 3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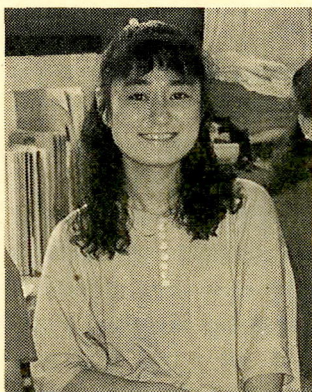
박경미(28. 부산 영업사원) 씨는 끈질기게 남아 있는 30여 명 농성자 중 한 사람. 예쁘장한 박경미 씨는 고양된 얼굴로 말한다.

“구속된 동료들과 함께 복직해 우리 회사를 진짜 아름다운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태평양화학에 입사해 9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여사원이다. 가정방문이나 학교·단체에서의 미용강연 등으로 판매수익을 올리는 일에 야무지고 열심이었던 박 씨는 그래서 남들보다 진급도 빨랐다.

기자가 영등포 성문밖교회 안의 농성장을 찾았을 때 박 씨는 미용사원답게 머리를 예쁘게 빗어올리고, 간단한 화장까지 한 깔끔한 모습이었다.

“우리 회사 제품 하나라도 더 팔려고 타사 판매원들과 머리칼 쥐어뜯으며 싸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임금 올려 달라니까 회사는 단박에 나를 빨갱이로 몰아부쳐 내쫓더군요. ‘우리가 회사를 아끼고 사랑한 만큼 회사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진 않았구나’를 절감했어요.”



이처럼 월급인상으로 시작된 노동쟁의였지만 박 씨에게 이 농성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을 외치던 관리자들의 속셈을 확인했고 구사대의 활약상(?)을 보게 됐다는 것.

“농성기간 중에 경찰과 구사대에게 번갈아 얻어맞고 ‘빨갱이년들’이란 욕설까지 들으면서 분하고 서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다같은 노동자 처지에 눈 앞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게 된 그 사람들을 보니 서글픔이 앞서더군요.” 박 씨는 “그러나 구사대도 알고 보면 고용주에게 얽매인 딱한 처지”라는 속깊은 말을 잊지 않는다.

“유난히 박봉이었고 복지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회사였지만 9년 동안 일했던 만큼 태평양화학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이 박 씨의 말. 그래서인지 그는 “반드시 복직해서 태평양화학을 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